부산시지회를 찾아서

항도(港都) 부산-

이곳에 첫발을 내딛노라면 마치 도시전체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된다. 끊임없이 드나드는 컨테이너 화물선과 하역장의 분주한 움직임, 새벽 자갈치 시장의 생동감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활기찬 모습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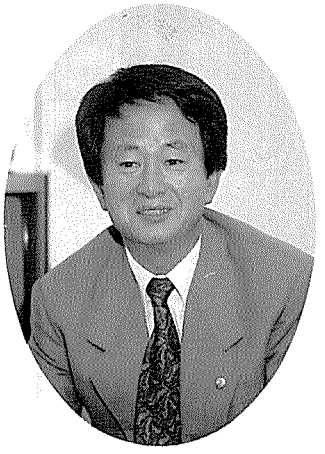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활기찬 모습은 부산의 겉모습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못지 않게 더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으로 부산지역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곳이 있다. 본회의 부산시지회가 바로 그곳이다. 이에 본지는 부산시지회를 찾아 오늘날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활동상을 알아 보았다.

부산시지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본회의 태동과 관련된 사항이다.

1963년 당시는 식량자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때로 정부에서 분식업소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분식 장려시책이 활발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같은 밀가루를 주원료로 취급하는 제과점에 '유흥 음식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부산의 제과업자들이 부당한 처사임을 들고 나오면서 이것이 도화선이 돼 본회 창립의 계기가 됐다.

용성복 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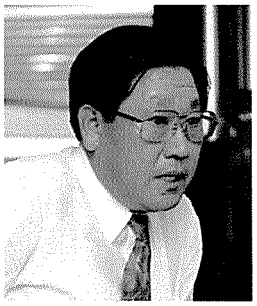


최재호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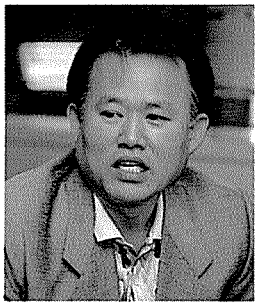
즉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산에서 오리엔트양과점을 경영하던 김봉출사장(작고)을 비롯한 제과인 몇몇이 급히 상경해 충무로 태극당의 신창근 사장(본회 전회장)과 전임 조승환회장, 뉴욕제과 김봉용회장(작고), 풍년제과 선호석사장, 부산 뉴욕제과 곽노필사장과 함께 주축이 돼 협회 창립을 기초했고 63년 1월 23일 본회 전신인 '대한빵과자협회'를 설립 당면 과제였던 유흥 음식세를 철폐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부산시지회는 특유의 기질과 결집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지회 및 지부 중 최초로 1966년에 창립, 28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며 오늘날 11개 지부를 거느린 전국 최대의 규모로 성장해 왔다.

부산시지회의 이런 인화와 결집력은 본회의 정기 총회 때 대의원 전원이 버스로 총회장에 참석하는 모습이나, 지난해 8월 개정 법령과 관련해 회원 250여명이 버스에 분승하여 '과천행'을 감행한사실에서도여실히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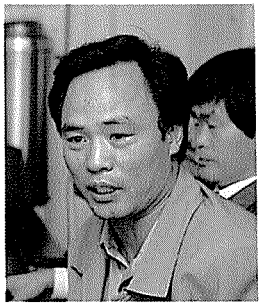


양성준 부 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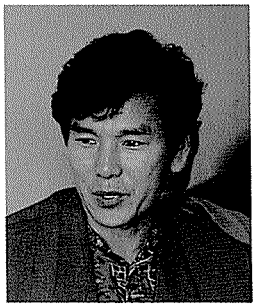


김판식 부 지회장

장정환 진구 지부장



강대우 금정구 지부장



심영보 북구 지부장

이밖에도 인화와 결집력의 발로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부산시 지회는 '과업인의 날'을 선정해 업계 종사자와 가족이 동참한 가운데 매년 1회씩 5년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지부별로도 '조기 축구부'가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최재호 고문을 중심으로 각 지부에서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월례 행사로 치러지는 '과우산악회'활동 역시 지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다지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회원간의 결속력이 굳다 보니 이에 얽힌 미담도 적지 않다. 화재로 인해 점포가 잿더미가 된 회원에게 성금을 모아 전달한 일이나, 뇌출혈로 쓰러진 회원을 위해 기꺼이 성금 모금에 동참한일, 남편이 정신 질환으로 아내가 가게를 운영할 수 밖에 없게 된 딱한 사정을 고려해 지부 차원에서 기술지원을 해준 일은 부산시지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증명한 사례다.

현재 부산시지회는 내적인 결속을 다지는 이런 활동 외에도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불우 이웃돕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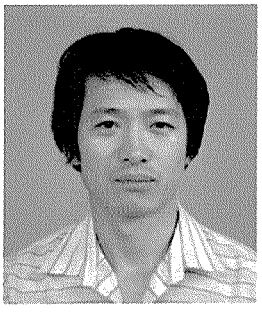
지회를 구심점으로 ▲진구 장정환지부장 ▲금정구 강대우 지부장 ▲북구 심영보지부장 ▲동래구 오명복 지부장 ▲동구 김광덕 지부장 ▲남구 정대수 지부장 ▲중구 김유복지부장 ▲영도구 정형규지부장 ▲서구 백해종 지부장 ▲해운대 정상수지부장 ▲사하구 노홍지부장 이상 11개 지부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아 방문 결연비'를 모금해 연 4회에 걸쳐 고아원과 재활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지부별로도 자체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부산시지회는 앞으로도 부산 지역 제과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구상중이며 기존에 벌이고 있는 사업을 한층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술분과위원회에서는 신제품을 회원 모두가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 향상을 위해 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위생자율지도사업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질높은 자율지도 활동으로 회원 업소들의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산지역 제과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시지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화와 단결, 그리고 무한한 자부심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1991년 지회 및 지부로서는 전국 최초의 전용 사무실을 마련한 것이나, 특유의 결속력으로 최대의 조직을 갖추고 여러가지 활발한 사업과 활동을 벌여온 사실은 지금까지 회원들의 가슴 속에 무한한 자긍심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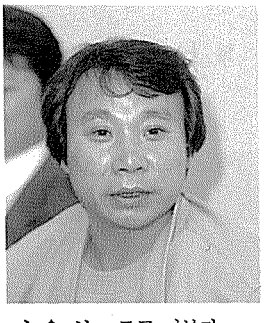
끝없는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부산시지회 발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새롭고 발전된 모습의 부산시지회를 만나게 될것이다.



오 명 복 동래구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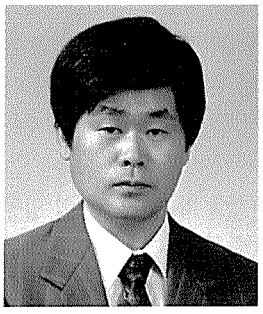
김 광 덕 동구 지부장

정 대 수 남구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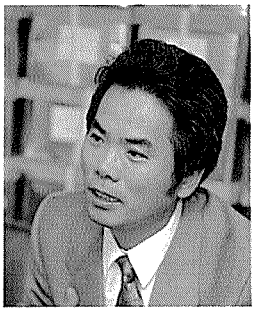


김 유 복 중구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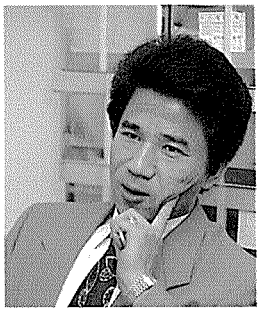
정 형 규 영도구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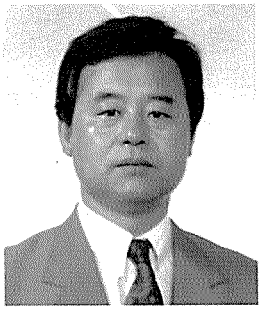
백 해 종 서구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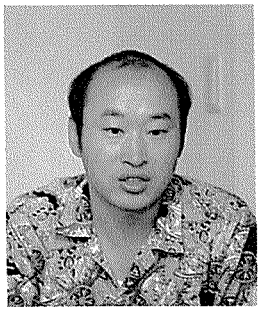
정 상 수 해운대 지부장



노 홍 사하구 지부장



조 철 관 위생지도위원장



정 용 식 기술 분과 위원장